



나라꽃에 대한 소고

〈임우회부회장 김 사 일〉

○ 머리말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상징을 국기, 애국가, 나라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기는 나라마다 건국과 동시에 법령으로 제정하여 세계만방에 알리고 있지만 애국가와 나라꽃은 법령으로 제정된 나라가 있는가하면 언제 어떻게 하여 제정되었는지 확실치 않은 나라도 많다. 특히 나라꽃에 있어서는 나라꽃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하면 한 종류의 꽃이 두나라의 나라꽃으로 정해진 것도 있

고 또 한 나라에서 두가지이상의 꽃을 나라꽃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된 유래에 대하여서도 확실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민족과 영욕(榮辱)을 같이 해온 나무로서 우리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애국가의 후렴에 무궁화가 들어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국가기관의 기관기, 대통령휘장, 공무원뺨지, 군인 및 경찰의 모표 및 계급장, 화폐, 국기봉, 국새의 손잡이

등등 무궁화 문양(紋樣)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무궁화가 나라꽃 및 국가문장(國家紋章)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학자와 국민들간에는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적합하지 못하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민족단합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꽃(무궁화)에 대하여 적부양론의 의견이 분분하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팝나무 노거수 개화전경

○ 무궁화의 나라꽃으로서의 적부양론

우리나라 국민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으나 나라꽃으로서의 부적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적·부양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주변 환경은 가로수·공원수를 위시하여 각종 조경용으로 일본의 나라꽃인 왕벚나무가 온통 뒤덮고 있고 해마다 봄철이 되면 곳곳에서 열리는 벚꽃축제에 모여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축제는 찾아볼 수 없고 전시회정도가 고작이다.

왕벚나무는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인데 어디다 심을든 무슨상관이 있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벚나무는 일본의 나라꽃이므로 고궁이나 사적지 등에 심어서는 아니된다는 사람도 있다. 둘 다 일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임진왜란 민비시해, 한일합병, 일제36년간의 만행등을 생각한다면 왕벚나무가 비록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라고 할지라도 전세계가 일본의 나라꽃으로 알고 있는 이상 우리 스스로 식재를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가로수 조경수등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꽃으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거나 무궁화는 관목으로 대체수종으로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무궁화의 나라꽃으로 부적합론이 표출되고 있어 민족단합의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나라꽃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부적합하여 다른 수종으로 바꿀려고 하여도 애국가, 국어사전, 교과서, 국가문장등등 부수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적, 부양론의 주장

적 합 론	부 적 합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목시적인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비록 외국수종이라 할지라도 천년이전에 토착화한 기화식물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이북지방에서도 생육이 가능할 것이다. • 나무마다 병·해충이 끼지 않는 나무가 없으므로 농약을 살포하여 방제하면 된다. • 꽃의 낙화상(落花相)등에 대한 지적은 주관적인 심미안(審美眼)의 차이일뿐 이다. • 나라꽃은 민족적·역사적으로 깊은관계를 가져야하고 민족적 애환을 같이한 무궁화야 말로 나라꽃으로는 으뜸이다. • 꽃이 떠오르는 태양같이 아름답다. • 한개 한 개의 꽃의 수명은 짧지만 개화기간이 길어서 좋다. • 화려한 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라도 그 나라의 역사와 관계가 깊은 나무를 나라꽃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꽃으로 정한 법률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무궁화는 외래수종(원산지 : 인도)으로 나라꽃으로 삼기는 부적합하다. • 무궁화는 내한성이 약해서 황해도 이북지방에는 심을 수 없는 지역적한정성이 있다. • 진딧물을 비롯 병·해충이 많이 끼어 청결하지 못하다. • 꽃이 아침에 피었다 오전10시가 되면 시들기 시작하여 오후가 되면 배배고여 아주 추한 모양으로 변한다. • 꽃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단명서세(短命虛勢)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 개나리, 진달래꽃이 한창인데도 싹이트지 않은 태만한 나무다. • 나라안에 꽃피는 나무가 2,000종이나 있는데 하필이면 외래종인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삼았다는 것은 심미안이 부족한 탓이다.



너무 많고 역사적인 배경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헌법개정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나라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호 위와 같은 현안사항들을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 스페인, 일본, 호주등과 같이 제2나라꽃 즉 민족의 꽃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민족의 꽃(제2나라꽃)의 구비요건

- 백의민족의 순박하고 고결한 민족정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순백색의 꽃이 필 것
 - 외래수종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수종일 것.
 - 전국어디다 식재하여도 생육이 가능한 내공해 및 내한수종일 것
 - 수명이 길고 거목으로 자랄 수 있을 것
 - 수간이 통직하고 수형이 아름다울 것
 - 가로수, 공원수 · 정자목 등 어디다 심어도 잘 어울리는 나무일 것.
 - 병, 해충에 강한 수종일 것
 - 개화기에 사람이 모여 들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것.
- ※ 이상의 조건을 갖춘 나무면 민족의 꽃으로 지정하여도 좋을것으로 사료된다.

○ 민족의 꽃 나무로 적합한 나무

민족의 꽃으로 선발하여도 손색이 없는 수종은 봄꽃들이 끝날 무렵인 5월주, 하순에서 6월상순에 걸쳐 순백색으로 꽃이 피는 이팝나무, 야광나무, 아그배나무, 팔배나무들을 들 수 있으나, 이중에서도 이팝나무는 눈부신 순백색의 꽃이 나무전체를 뒤덮고 있는 경관이 마치 눈이 내려 나무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다하여 영명으로 눈꽃나무(Show Flower Tree)이라고 부르고 있고 더욱이 향긋한 꽃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정도로 매혹적이며 또한 세계적인 희귀수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이팝나무 거목들은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상의 생육특성과 정황을 감안할 때 민족의 꽃으로는 이팝나무가 가장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된다.

○ 맺는말

이팝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으로 옛부터 우리 생활환경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백의민족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나무로서 민족의 꽃(제2나라꽃)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팝나무는 왕벚나무보다 수명이 길고 크게 자랄수록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나무로 왕벚나무의 가로수, 공원수 등의 대체수종으로도 가장 적합한 나무다. 서울의 청계천은 생태계복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지만 현재 계천양안을 따라 심어진 아팝나무가로수는 멀지 않아 또하나의 명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나라꽃(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민족단합의 구심적역할은 물론 민족정서와 잘 어울리는 이팝나무를 민족의 꽃(제2나라꽃)으로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로수 · 공원수, 조경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서가 산림관계 기관인만큼 이일은 임업인과 조경인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팝나무 가로수, 공원수, 정원수 등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여 벚꽃나무 축제대신에 전국방방곡곡에서 이팝나무꽃 축제가 성황을 이루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